지식경제부 보도자료	http://www.mke.go.kr
2011년 4월 14일(목) 10: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지식경제부 성장동력정책과 이동욱 과장	오충종 사무관 2110-4757
국무총리실 신성장정책과 박동일 과장	김태형 사무관 2100-2327
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홍두선 과장	김영민 사무관 2150-4551
교육과학기술부 융합기술과 성기억 과장	이가영 사무관 2100-6654

"융합으로 사고하고, 녹색으로 승부한다!"

- 민관 공동으로 신성장동력 성과 점검 및 정책과제 논의 -

① 성과가 가시화되는 10개 전략 프로젝트 조기선정, 중점 지원
②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, 정책펀드·연기금 투자확대
③ 5년제 학·석사 도입, 신성장동력 중심으로 대학의 구조개편 유도

□ 정부는 '11.4.14(목) 오전 **이명박 대통령 주재**로 기업대표, 학계·연구소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, **'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**(제83차 국민경제대책회의)'를 개최하였다.

○ 이 자리에서 정부는 그간의 신성장동력 추진성과를 점검하고, 앞으로 나가갈 방향에 대해 **민간과 허심탄회하게 논의**하였다.

□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도약을 위한 **새로운 경제 비전 제시**를 위해 **민간중심의 논의**를 통하여, '09년 1월에 17개 **신성장동력**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.

○ 그간 정부는 신성장동력에 **올해까지 총 8.8조원의 예산을 투입**하고, 융합화에 대응하여 "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", "산업융합촉진법" 등 **39개의 핵심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**하는 한편,

○ 인력양성과 금융 및 세제지원, 중소기업 육성 등 **다각적인 지원노력**을 추진해왔다.

< 17개 신성장동력 >

녹색기술 (6개)	신재생에너지, 탄소저감에너지, 고도물처리, LED 응용, 그린수송시스템, 첨단그린도시
첨단융합 (6개)	방송통신융합, IT융합시스템, 로봇응용, 신소재·나노융합, 바이오제약·의료기기, 고부가식품
고부가서비스 (5개)	글로벌 헬스케어, 글로벌 교육서비스, 녹색금융, 콘텐츠·SW, MICE·관광

□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도 **전기차 국산화, 스마트쉽(Smart Ship),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수출 증가** 등 **일부 분야에서 시장이 열리고, 투자**도 가시화되는 상황으로,

* 붙임 : 신성장동력 주요 성과품목

○ 신성장동력에 **신규로 진출한 기업도 꾸준히 증가**하는 등 **경제구조가 변화**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, 올해 주요기업을 중심으로 **바이오시밀러, 이차전지** 등에 대한 대규모 **투자계획이 발표**된 바 있다.

□ 이처럼 성과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, **신성장동력이 추진 3년차**에 접어 들고, 일본, 중국 등 **세계적으로 신성장산업 先占競爭**이 시작된 만큼,

○ 이제는 그간의 **성과를 점검하고, 개선방안을 모색할 時點**이라는 것이 이번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의 개최 배경이다.

□ 이를 위해, 정부는 지난해부터 총리실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그간의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**민간전문가와 함께 점검**을 했고, 논의과정에서 **민간 전문가**들은 크게 4가지 사항을 제기하였다.

○ **▲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 필요성 ▲ 기업의 투자애로와 제도개선의 지연 ▲ 금융지원 시스템 확충 ▲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 부족** 등이 주요 내용이다.

□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민간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부처 장관과 민간 토론자들간에 **활발한 의견개진**이 이루어졌으며,

○ 신성장동력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**구체적 방안**에 대해 **인식을 공유하고, 공감대를 확인**하였다.

1 우선, 신성장동력의 성과 가시화를 앞당기기 위해 **10개 전략 프로젝트를 발굴**해서 **집중지원하는 선택과 집중** 추진(9월까지 확정)

○ 4세대 이동통신(LTE Adv.), IT융합 병원, 해상풍력 등 시장이 빠르게 열리는 분야를 중심으로 **10개 전략프로젝트를 민간 중심으로 선정**해서, 각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서 패키지로 지원

* (예시) 4세대이동통신(LTE adv.), 시스템반도체, IT융합병원, 천연물신약 등 바이오, SW 등 문화콘텐츠, 전기차 및 기반인프라, 해상풍력, 박막태양전지, 건물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, 물처리기술 및 시스템

○ 아울러, 10대 전략프로젝트 개발에 따르는 국내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해, **7대 장비 국산화 사업도 중점 추진**

* 7대 주력장비 : 반도체, 디스플레이, LED, 그린수송, 바이오, 의료, 방송장비

○ 신성장동력 **성과를 위협하는 요인**에 **선제적으로 대비**하기 위해, **디지털저작권** 침해방지, **정보보안·보호** 등 R&D 강화 및 제도개선도 병행

2 또한, 기업의 투자애로 해결을, 기존의 개별부처별 해결방식에서 벗어나 다 부처간에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**"업종별 전담관제"를 도입·시행**

○ **업종별 주요기업과 10대 전략프로젝트**를 대상으로 **R&D에서 사업화단계**까지 **애로사항**을 파악, **종합해결**하기 위해,

- **업종별 전담관을 지정**하고, 업계의 Needs를 파악하여 **관련 부처T/F**를 통해 해결하되, **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**를 통해 최종해결

○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**기업규제와 기술규제를 대폭 개선**하고, 특히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제조업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법령정비 및 지원대책을 마련

3 아울러, 신성장동력 성공을 지원할 금융시스템 확충 등 **신성장 금융을 보다 활성화기 위한 정책과제**를 제시

○ R&D·상용화단계 기업의 정책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**신성장 정책펀드의 투자대상 발굴을 촉진***하고 **On-lending 대출 및 기술평가보증 공급**을 확대**

* 신성장정책펀드(지경부의 신성장동력펀드 등 총 4.6조원 조성)의 투자대상 발굴 촉진을 위해 투자집행실적 우수 자산운용사에 향후 자산운용사 신규 선정시 가점 부여

** 정책금융공사 신성장분야 대출 규모 : ('10년) 1.1조원 → (11년 계획) 1.3조원
기보의 신성장분야 기술평가보증 : ('10년) 2.9조원 → (11년 계획) 3.7

○ 성장·성숙단계 기업의 민간금융 활성화를 위해 최대 3,000억원 규모의 **P-CBO를 발행**(11년중)하고 신성장분야 코스닥 상장특례 등을 통해 **투자자금 회수 장치를 강화**

○ 신성장기업이 유망기술을 바탕으로 대출을 손쉽게 받을수 있도록 **기술평가시장을 활성화***하고 평가기법을 선진화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

*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에 대해 On-lending대출 및 한은총액한도대출 배정시 우대, 은행경영실태평가시 고려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수요 확충

○ 연기금 감사시 **적극행정 면책제도***를 적극 활용하여 **연기금 투자 확대 유도**및 **신성장인력 양성** 등을 통해 신성장산업에 적합한 금융 환경 조성

* 투자결과 일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, 운용사 선정 등 투자절차가 적법하고 고의·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

4 신성장동력 분야의 핵심인력 확보를 위해, **수요자 친화형 교육시스템**으로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과제를 발표

○ 대학과 산업별 협의체(Sector Council)를 연계하여, 산업계의 인력 요구에 맞게 공급방안을 모색·마련하는 상시 플랫폼 구축

○ **5년제 학·석사 과정 도입을 추진**하고, 계약학과 및 산업체 위탁 교육제도 활용, 사립대 학과개편 컨설팅 지원 및 국립대 특성화(통·폐합시)등 **신성장동력 중심으로 대학의 구조개편을 유도**

- **산학협동연구, 산업체 애로기술 지원** 등 **산학협력 실적으로 평가받고 승진할 수 있는 경로**를 마련하는 등 **교원인사제도 개편**

○ **R&D사업 확대** 등을 통해 "고급연구인력-지역기술인력-현장실무인력"의 수준별 **신성장동력 인력양성**을 **체계적**으로 **지원**

5 신성장동력 분야 동반성장 및 지역발전 강화

○ **대기업 및 중소기업이** 신제품을 **공동 개발**하고, 해외프로젝트를 **함께 수주**할 수 있도록 부처간 연계를 통해 **종합지원** (중기청)

* LED, 풍력, 태양광, 의료기기 등 해외프로젝트 발굴을 확대하고, 수출 컨설팅, Kotra 등 해외 네트워크를 연계 지원
  - (예시) 10개 LED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러시아에 **4년간 1조원 LED 계약** 체결 ('11.3)

*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R&D 집중지원 및 사업화 촉진('11년 1,067억원)

○ 5+2 **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**이 신성장동력을 중심으로 발전하고, 이를 통해 **지역의 특성화된 발전모델**이 창출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이를 통해 4만달러 시대를 앞당기도록 노력

□ 이날 논의에서 마련된 정책과제는 주무부처가 조속히 후속대책을 마련·추진하고, **장관이 직접 주기적으로 점검**하는 한편,

○ **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** 등 총리실 중심으로 국과위, 녹색위, 융합발전위, 서비스선진화점검단 등과 분야별 기관이 유기적으로 참여하여, **후속집행을 철저하게 점검·실행할 방침**

< 붙임 > 신성장동력 분야별 주요 성과

분 야		주 요 성 과
녹색기술	태양광	○ 일관생산체제 구축, 생산능력 확대로 '15년 세계시장점유율 15% 목표 * (폴리실리콘) OCI → (잉곳/웨이퍼) 넥솔론 → (태양전지) 신성솔라에너지 → (모듈) 에스에너지 → (시스템) KC코트렐 등 * 수출(억불) : ('07) 1.8 → ('09) 17.3 → ('10) 37.9 → ('11e) 66.7
	원전 플랜트	○ **한국형 원전 최초수출** ('09.12월, UAE) * NF소나타급 100만대, 30만톤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 수출효과
	LED	○ **세계최초 40인치 LED TV 양산** 성공('09.6월) ○ '10년 **세계 2위 LED소자 생산국**으로 도약하여 무역수지 흑자전환 * LED 무역수지(억불) : ('08)△1.54 → ('09)△1.72 → ('10) 4.14 ○ 10개 LED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러시아에 **4년간 1조원 LED 계약** 체결 ('11.3)
	전기차	○ 전기차 **'Blue-On'개발**완료('09.9, 핵심부품 100%국산화), 2,000대 규모 **양산시스템 구축** 예정
	이차전지	○ **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전기차용 이차전지 공급** * LG화학 → GM, Ford 등 / 삼성SDI → BMW 등에 이차전지 공급 ○ 세계 최대규모 공장 준공(LG화학, '11.4, 연간 10만대 규모) * '15년 세계시장 점유율 40%이상으로 세계1위국으로 부상
	플로팅 LNG선	○ 로열더치셸로부터 **LNG-FPSO 장기공급계약** 체결(삼성중공업, '09.7) * 향후 15년간 총 10척, 500억달러에 달하는 LNG-FPSO 독점공급
첨단융합	스마트폰	○ 휴대폰 제조경쟁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**시장 점유율 확대** * 우리나라 스마트폰 세계시장점유율 : ('09) 4.2% → ('10) 10.0%(4분기 14.3%) ○ 4세대 이동통신시스템 세계 최초 시연('11.1), '12년까지 4G 스마트폰에 적용
	RFID	○ **RFID리더 내장 USIM 세계 최초 개발**, RFID 도입을 통한 생산이력관리 실시(한미약품, 현대자동차, LG전자 등) * 스마트폰용 RFID 시제품 개발 완료('10.1, SKT)
	스마트 선박기술	○ **선박통신기술(SAN)**을 세계1위 해운사 선박 40대에 탑재(현대중, '11.3) * SAN(Ship Area Network): 선박내 각종 항해장치 상태를 통합 관리하고, 원격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첨단 제어기술
	로 봇	○ 청소로봇, 보안로봇 등 **서비스로봇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** * 국내 청소로봇 생산액(억원): ('09) 280억원 → ('10) 2,000억원 * 알제리에 감시경계로봇 시스템 수출 (삼성테크윈-블루픽셀 등 공동기술개발, 550억원, '10.5) ○ 시장수요 창출 확대를 위한 **로봇 시범사업** 추진('11년, 300억원)
	신소재	○ LED용 사파이어 단결정소재 등**10대 핵심소재**(WPM) **기술개발** 본격착수 * WPM(World Premier Materials) : ('11~'18) 1조원 투자 프로젝트
	바이오 시밀러	○ 셀트리온(마크로젠 공동참여)의 **'허셉틴'**(유방암), 한화케미컬의 **'엔브렐'**(관절염) 등 **제품출시**('11~'12) * 매출 : ('09) 1조원 → ('12) 10조원, 수출 : ('09) 1억불 → ('12) 7억불
고부가서비스	헬스케어	○ **외국인 환자 유치 증가** : ('08) 2.7만명 → ('10) 8만명 ○ **건강수지 :** ('08) 59.2백만불 적자 → ('10) 2.2백만불 흑자 전환
	SW	○ 자동차, 항공, 의료 등 SW융합 분야에서 WBS(World Best Software) 프로젝트 추진('11년, 1,000억원)
	녹색금융	○ **녹색인증제** 시행('10.4월) ○ 신성장 동력펀드 등 **투자펀드 4.6조원 조성**